
미래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15:00 ~ 17:40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 개요 및 진행순서	1
■ 기조강연	3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김 재 금(교육부 대학정책과장)	
■ 주제발표	25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과 제도적 지원	
- 대학 발전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 재 윤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 부 록	47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미래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방안」 토 론 회

■ 개 요

- 명 칭 : 「미래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3. 9. 26(목) 15:00~17:40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행정국)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참 석 : 도내외 사립대학 전문가 및 업무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

■ 진행순서

진행 :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내 용	시 간	비 고
등 록	14:40~15:00	참석자 등록
개 회 (인사말씀)	15:00~15:10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조강연	15:10~16:00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주제발표	16:00~16:20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과 제도적 지원 - 박재운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휴 식	16:20~16:30	Coffee Break
지정토론	16:3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김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 토론자 - 정환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장 - 김봉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박상수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 임창규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종합정리	17:30~17:40	Floor 의견수렴 등
폐 회	17:40~	

기조강연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김 재 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2013. 8.



Contents

- I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 II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 III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 IV 정책 추진과제
- V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I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I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 노년부양비(전망) : 10.1('00) → 15.2('10) → 22.1('20) → 38.6('30) → 57.2('40) → 71.6('50)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초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조경제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 봉착

- 세계경제 역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인식

-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에서도
인문학, 기초교양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강화 필요



보편화 단계 진입에 따른 고등교육 성격 변화 요구

엘리트 단계에서는 학과 중심의 특정 기초학문 분야 교육으로 충분하지만,
보편화 단계에서는 풍부한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요구



“ M. Trow의 고등교육 발전 단계(해당 연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률) ”



I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국제화로 인한 파트너십 확대와 경쟁의 심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시장 형성
 학생 이동, 프로그램·기관 간 파트너십 등 교류 증가
 ※ 2020년 전세계 유학생 수에 대한 전망(명) : 450만(UNESCO)~580만(Böhm)

대학, 교수, 학생 모두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압력 증대
 - 국가 간 학위·자격 인정 관련
 - 고등교육 질 관리(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 증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II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II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강 점	구 분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보편화단계로 발전 -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 : 71.3%('12) 	양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 요구 심화 수요 증가에 못 미치는 평생교육 - 대학 재적학생 중 25세 이상 학생 비율 : 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재원 부족에도 사학의 기여, 민간 재원부담으로 양적 성장 	재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등록금 의존, 학자금 대출 증가 -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10) 규모 : 0.7%, OECD 평균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리더 양성 고급인적자원의 집약, 지역발전 핵심주체로서의 역량 보유 - 사립대학교직원 보수 총액('11)은 82조, 수익용기본재산('12)은 9조 규모 	산업·사회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학과·교육과정 운영 - IMD 평가('13) : 국가경쟁력 22위, 대학교육의 사회요구부합도 41위

MINISTRY OF EDUCATION 9/37

II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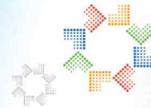
강 점	구 분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수준에 진입한 대학 배출 - QS 아시아대학평가('13) : 서울대 4위, KAIST 6위, POSTECH 7위 - 더타임즈 설립 50년 이내 세계대학평가('13) : POSTECH 1위 	대학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전문대 차별성 부족, 대학 특성화 부족 - 대학의 95.8%가 대학원 설치·운영 수도권-지방 대학 간 격차 심화 - QS 아시아대학평가('13) 상위 50교에 속한 대학 9교 중 7교가 서울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 - 세계 논문 점유율 2.71%(11위) 피인용 횟수 총 15,833회(13위) 	연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연구인력의 높은 외국 의존 - '02~'11 서울 주요대학 교수임용자 중 해외대학 박사 비율 :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인력 수요 팽창기에 지속적으로 필요 인력을 공급 - 연대별 국민평균 교육이수기간(년) : 5.7('70) → 7.6('80) → 9.5('90) → 10.6('00) 	교육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교수 위주 교육과정, 학생지도·상담 미흡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학 비율('09, 직능원) :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교원 증가 - 외국인학생 비율 : 0.5%('05) → 1.8%('10)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지역편향, 유학생 질 관리 미흡

MINISTRY OF EDUCATION 10/37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III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1 고등교육의 비전과 목표

비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

목표

-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고등교육 체제 구축
- 고른 접근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
-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

정책
과제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

전략

자율과 책무

특성화

글로벌화

소통과 협업



2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1 창조자본 형성

|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creative capacity) 강화

2 사회적 자본 구축

| 정신적 가치 유지·강화로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발전 선도

3 지역발전 기여

| 지역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거점 역할

4 국민행복 구현

| 개인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고,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 지원



3 고등교육 정책의 4대 추진전략

1 자율과 책무의 조화

2 대학 특성화

“대학특성화란?”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 기능 유형 등을 선정하고 지역과 학내의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3 대학의 글로벌화

4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





정책 추진과제

IV 정책 추진과제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가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과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 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다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 라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2.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 나 직업교육-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 다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3. 연구역량 강화

- 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나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다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4. 대학교육 혁신

- 가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 나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다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정책 추진과제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IV. 정책 추진과제

가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 및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1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 대학의 여건, 유형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학부-대학원 총량 적용 평가방식 검토

2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교육성과 등에 대한 평가 활성화
- * NASEL(KEDI), K-CESA(KRIVET),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 등
- 취업률 지표의 비중을 축소(20% → 15%), 취업률 산정 시 인문·예체능계 제외

3 자율적 구조개혁 기반 구축

- 안정적·체계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계획·실적 반영 검토

4 대학 설립 심사·요건 강화 및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 조치

-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
- 분류·중대비리 사학은 특별감사 후 퇴출



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1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책무성 제고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 확대

-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공재정 투입액, 학생당 누적 교육비 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 >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7	2.6(2위)	2.8	1.4	1.5	1.5	
- 공공재원	1.1	0.7(26위)	1.0	0.7	0.5	1.3	
- 민간재원	0.5	1.9(1위)	1.8	0.6	1.0	0.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8.4	27.3(26위)	36.3	25.2	34.4	81.9
	민간재원	31.6	72.7(2위)	63.7	74.8	65.6	18.1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3,528	9,972(20위)	25,576	15,862	16,015	15,067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교육비	57,774	34,202(16위)	81,076	43,463	71,441	60,570	

단위 : \$, PPP, 출처 : OECD(2013)

2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질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 재구조화 및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설계
- 재정지원 성과평가 강화
- 정부부처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 대학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양화 및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협의)

대학 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현 행



대학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ACE, 기관지원)
-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관지원)



전문대

- 전문대교육역량강화 사업(기관지원)

개 편

- 신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PLUS, 기관지원)
- 개편**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ACE 1유형, 기관지원)
- 개편** 특성화분야 육성사업 (ACE 2유형, 사업단지원)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포함, 기관 또는 사업단 지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다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1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추진

- 소득 8분위까지는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성적기준 (현행 B0) 완화 검토 및 '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2 장학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대학 및 수혜 학생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

3 학자금 대출제도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ICL 대출 전환 선택권 부여



MINISTRY OF EDUCATION 21/2017

라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1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지역의 교육·산업·경제·고용·문화·복지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 위상 정립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 추진

2 세계적 명문 지방선도대학 육성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세계 우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 육성

지역기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지식 생태계 조성

3 지방대학 육성과 구조개혁 병행 추진

우수대학은 특성화를 유도·지원하여 발전

부실대학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제한, 퇴출 등을 통해 구조조정

4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추진

지방대학생 공무원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취업지원

우수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특별전형 제도 도입



MINISTRY OF EDUCATION 22/2017



정책 추진과제

2.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2.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IV. 정책 추진과제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양성

-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운영 확대, 인문터치 산학협력 실시
- |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 캠퍼스를 일부 이전하여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산학공동 R&D, 근로자 평생교육 등을 종합 지원

2 산학협력단 역할 및 기능 강화

- | 산학협력단의 총괄 기획·조정 역할 강화 및 전문성·효율성 제고
- | 산학협력활동 자가진단시스템 개발·보급

3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성공 지원단' 구성·운영
- |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 유도 및 산학협력 유동망 구축

4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 |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 창업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나 직업교육-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1 핵심 직업인력 수급 선순환 체제 구축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체 간 연계 체계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주도로 직업교육 평가체제 마련

2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기업과 취업이 약정된 대학생을 선발·지원

3 전문대학 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

- 전문기술·기능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
- 명장은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에서 실습교육 교원으로 활용



다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대학 운영 확대

- **학생모집·등록** 정규 학생과 시간제 등록생 등 비정규 학생으로 모집
- **교육과정** NCS 학습모듈 활용, 취업·창업 특화교육,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 **수업운영** 야간·주말과정, 수업연한 단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현장 실습 등으로 교육 접근성 제고
- **학점인정**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비정규 학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

2 생애단계별·계층별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소외계층** 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주민·여성경력단절자 등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청년층**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기회 확대
- **장년층** 퇴직대비 취업·창업·직업전환 교육 프로그램 확충
- **고령층** 대학을 통한 교육·복지·여가활용 혼합 프로그램 제공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지자체·기업·대학 인센티브 지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제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학 평가항목에 평생교육 제공·참여정도 포함, 평생교육 관련지표 정보공시





정책 추진과제

3. 연구역량 강화

3. 연구역량 강화

IV. 정책 추진과제

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1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 양성

▮ 우수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장기 지원(13~19)으로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2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강화

▮ 학업 및 연구능력이 탁월한 전일제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학문,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 강화

3 동아시아 지식·학문 허브로의 성장 기반 마련

▮ 대학 연구자, 연구소 간 공동 연구, 국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 확대 유도



나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1 학술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
 - | 일반연구자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 강화
 - | 이공분야 기초연구, 인문사회분야 정부연구 지원 규모 확대
- 2 학술연구 지원 기반구축**
 -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인문사회 연구지원의 기획, 평가, 재정확보 근거 마련
 -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 정책개발 및 기획·평가 역량강화
- 3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
 - | 사업 목적, 지원분야, 연구자의 성장단계, 연구유형 등을 감안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화
 - | 미래부와 이공분야 연구지원 협업체계 구축
- 4 학술 연구성과 활용체제 구축 및 연구자간 연계확대**
 - | 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제고
 - | 국내외 연구인력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술연구 세계화
- 5 학문특성을 감안한 성과관리 및 평가 시스템 정착**
 - | 학문분야별-전공단위별 연구성과 평가체제 개선
 - | 연구윤리 교육, 공통지침 제정 등 학계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

다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 1 대학원 학위 및 학사 운영 관리 강화**
 - | 대학원 종류별 특성화를 위한 학위·학사 체제 개편 검토
 - | 대학원 학위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강화
 - | 대학원 학위·학사관리 우수모델 마련
- 2 대학원 정원 관리 및 설치기준 강화**
 - | 정원 외 입학비율 제한 및 점진적 축소
 - | 대학원 학과·대학원대학 신설(설립)기준 강화
- 3 대학원 평가 실시 및 대학원 정보공시 체계 구축**
 - | 대학원 교육·연구의 여건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학원 평가 실시
 - |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수요자 선택권 확대
- 4 대학원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 | 대학원 운영 관련 협의기구 신설 또는 대학원위원회 기능 강화
 - |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 구성·운영 유도





정책 추진과제

4. 대학교육 혁신

4. 대학교육 혁신

IV. 정책 추진과제

가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기본방향

- 교육부** 대학이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지원
- 대학** 교육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 교육의 질 제고

- 1 기초교양교육 및 인문학적 토대 강화**
 - | 창의적 기업가 정신, 세계시민의식 등을 갖춘 인재양성
 - | 대학 내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교양교육에 대한 전임교원 참여 확대
- 2 대학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노력 지원**
 - |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원
- 3 대학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학사관리체제 구축 유도·지원**
 - | 학사관리 내용·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시 및 모범대학 선정·지원
 - |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요소에 학사관리 관련제도 및 자체 노력정도 반영
- 4 교육과정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권장**
 - | 교육과정 전반(기획-실행-평가)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권장
 - |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진단도구 활용 유도



나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1 특성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대학단위·복합분야·프로그램·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모형 선택

재정지원 시 성과관리 강화 및 재정지원사업 이력제 실시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자리중심 교육 강화

현장 변화와 산업기술 고도화에 부응하는 직업인재 양성

3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반 조성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토대로 우수 학교기업의 자립화 추진



다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1 맞춤형 유치 전략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원 전략국가 유학생 유치

대학 유학생 출신국가 다변화 촉진

전문대학 직업훈련 관련 특화분야 및 해외 산업체 연계 유학생 유치

2 국제장학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의 확대

국제장학사업(GKS)을 '15년까지 연 1,000억 규모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 유치

〈 한·중·일 유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수 비교 〉

	일본	중국	한국	일본:한국	중국:한국
유학생 수(A)	138,075	292,611	89,537	1.54	3.27
정부초청장학생 수(B)	9,396	25,687	2,513	3.74	10.22
B/A	6.80%	8.78%	2.81%	2.41	3.48

자료 : JASSO, CSC, 국립국제교육원('11 기준)

3 국내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외 대학간 교류 및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

해외봉사, 국제기구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국내학생의 글로벌 취업능력 제고

4 체계적인 국제화 질 관리 및 기반 구축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원 등에 까지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확대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V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미래 대학의 모습 (Core network for generating & training creativity)

- | 융합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 에너지를 창출, 송전하는 **지식 발전소**(Knowledge generator)
- | 실패를 격려하고 창의적 도전을 응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의 연습경기장**(Training ground for success)
-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중핵**(Global network core)
- | 고른 대학 교육 기회와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행복 충전소**(Happy dreamer)

미래 대학인의 모습 (Creativity sharing leader)

- | 끼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Creative converger)
- | 지역·국가·국제사회를 위해 **행복 가치를 공유하는 실천가**(Sharing sage)
- |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Leading leader)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과 제도적 지원

- 대학 발전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 재 윤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과 제도적 지원

- 대학 발전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 재 윤(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I

저는 작년 2012년에 제주도특별법의 개정을 잘 활용하여 제주도 대학들이 발전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은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특례들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 지역에서 대학들이 다양하고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¹⁾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번 연구의 결과를 다시 되풀이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발전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발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발전 사례들 중에서 제주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자료 준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에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II

먼저, 대학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공하는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 창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수업연한, 학과, 과정

1) 여기서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각종 지침의 개선 등 법제도의 개선을 의미함

등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대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허용 내지 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전문대학을 보면²⁾ 대만은 정부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로 전문대학을 살려냈고, 일본은 전문대학의 줄 도산 사태를 불렀습니다.

대만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2000년대 대만 전문대학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여, 2009년 출산율이 1.0으로 당시 우리나라 1.26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4년제 대학에서도 직업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2015년 이후 50~60개의 전문대학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학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간 결과 전문대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대만 전문대학은 2년 과정 간호전문계열 14개교만 남아있고 나머지 51개교는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연한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여기서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각종 지침 등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대만 정부는 전문대학이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대학 3년 이상 운영, 도서관 면적 5,000㎡ 이상, 장서 15만원 및 2가지 분야의 전문서적 서비스 제공, 행정 및 교육 분야 1등급 등의 기준을 제시해서 이를 충족하는 대학만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으며, 아울러 4년 주기로 과학기술대학 평가를 시행해 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했습니다.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충원이 가능하지만 4등급을 받을 경우 모집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 임용 및 평가도 엄격히 시행하여 10년 이상 산업체 경력이 있어야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 및 학생지도, 기술개발, 산학협력의 실적에 대하여 엄격한 교수평가를 실시하여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전문대학은 1997년에는 53만 명이 넘었던 학생수가 2012년 현재 1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대학은 4년제가 780개,

2) 이하 대만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대학신문」 기획기사, 2012. 7. 6에서 인용하였음

전문대학 387개로 4년제 대학이 2배 정도 많으나, 학생 수로 비교하면 4년제 대학 재학생이 289만 명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15만 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문, 사회, 예술 계열의 학생 수 급감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문계열 학생 수는 1993년에 비하여 2011년 10%, 사회, 예술계열은 22%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일본 전문대학 내에 자동차 관련 학과는 8개교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대기업은 자체 전문학교를 보유해 인력을 양성하는데다가 최근 일본 자동차 관련 업종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수험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문대학의 침체는 학력저하, 정원미달, 경영부진으로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 전문대학은 유아교육과 간호 보건 계열의 학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했습니다. ‘수업연한을 다양화’했다는 의미는 종전의 전문대학의 2, 3년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4년제, 그리고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변형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전문대학의 교육의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문대학이 제공해온 교육 프로그램의 기간, 내용, 위상, 전문성 등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이 그러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문대학이 제공하는 학과나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한 것은 수업연한을 연장하거나 대학원과정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만은 전문대학 중에서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의 학교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허용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의 명칭 자체가 ‘단기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일본에서 단기대학의 수업연한을 늘리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됨을 의미합니다.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거나 대학원과정을 두는 것은 단기대학이라는 명칭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들이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III

다음은 외국 대학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학교간 합작, 정부 간 합작, 학교와 사회 간의 합작을 허용합니다. 또한 독립설립방식과 비독립설립방식을 허용합니다.³⁾

학교간 합작 방식의 대표적 예는 시안교통대학과 영국의 리버풀 대학 즉 ‘시안교통-리버풀대학’의 합작사례입니다. 이 방식은 외국 측에는 운영에 필요한 과정 설치, 전공과 언어 교재 및 증서 제공, 전공과 언어에 필요한 교수의 일부 또는 전부 파견 혹은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국 측에서는 운영 인원, 운영 장소, 일상적 관리, 기초분야 교수 및 증서를 제공합니다.

정부 간의 합작으로 상하이 중국 유럽 국제공상학원(國際工商學院)이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MOU’의 체결 결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작방식은 정부의 추진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과 재정 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 간의 합작으로 충칭대학과 홍콩 미시전력집단유한공사(美視電力集團有限公司)가 합작한 ‘충칭대학미시영화학원’, 해외의 리자칭기금회(李嘉誠基金會)와 산터우대학(汕頭大學)이 합작한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이 있습니다.

독립설립방식이란, 중국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학교의 독립성, 법인자산의 자유, 그리고 법적 운영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외국교육기관이 단독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설치토록 합니다.

독립설립방식은 학교운영경비를 중외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민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충당하고 독립적으로 재무결산을 실행하고 민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된 캠퍼스와 기본시설의 구비, 상대적으로 독립된 교학조직과 관리체제가 존재하며 학생모집, 학력증서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제공합니다.

3) 중국 사례는 구자역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을 참고함

비독립설립방식은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중외합작 프로그램과 중외합작 2급학원을 의미하며, 중외합작 2급 학원은 중국 측 합작대학이 법인주체가 되어 국외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합작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1994년에 설립된 상하이대학-시드니 공상학원과 1999년에 설립된 지린대학-램턴대학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합작사례는 제주도의 고등교육에서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다양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칭 ‘제주도내 외국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다양한 협력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IV

다음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광역 경제권 개발과 산학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조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차원에서 전도적(全道的)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이 협력하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광역경제권 도시개발과 산학연 활성화 사례를 살펴볼만 합니다.⁴⁾

애틀랜타 시는 1970~1980년대 중공업 중심에서 석유, 화학제품, 자동차, 항공기, 식료품 등의 산업이 활발했으나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생명과학 및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 도심 내에는 적은 공간으로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 및 서비스 산업을 배치하고,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제조업 및 장치 설비산업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시켜 나갔습니다.

고용 및 인프라에서 적극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정책을 통해 새로운 고

4) 이상용 외(2006), 「광역 애틀랜타 경제권 상생발전 사례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용을 창출해나가고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시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 아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시 소유의 각종 낭비적 시설과 장비의 매각, 인건비의 합리화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컨벤션 산업, 생명공학 등 미래 산업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기업 본사 및 핵심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애틀란타 시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 정부 조직 내에 경제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운영했습니다. 그 산하에 애틀란타 개발청, 중앙 애틀란타 개발위원회, 애틀란타 조시디자인위원회, 애틀란타 인력개발청 등을 두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지역 내 10개 카운티의 지방정부간 광역행정기관을 두어 전문적 계획, 정보제공,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서 애틀란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에 관해서는 혁신의 리더로서 기업체와 연구소 중심의 협력 모형을 개발하여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협력의 구심점으로 ‘조지아 연구 연합체’(Georgia Research Alliance)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개별대학 중심, 응용기술 R&D 중심, 이론 및 연구중심, 각 사업별 느슨한 수동적 네트워크, 교수별 과제별 참여라는 일반적 산학연 협력모형이 아니라, 기업체 및 연구소 중심, 현장기술 R&D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 및 활성화, 현장 실무 및 실습 중심, 산학 협력 협의체를 통한 개방적, 능동적, 협력적 네트워크, 학생, 교수, 전문가 등의 포괄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산학연 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정부가 경제권 개발과 산학연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V

이 밖에도 제주도 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연산 클러스터 대학의 기술 상업화 사례,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대학 캠퍼스 내에 학연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인근 반월, 시화공단의 산업단지 공단에 위치한 잇점을 살려서 실용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⁵⁾

맞춤식 교육인 ERICA(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Ansan)를 통하여 학생들을 실용전문인력으로 양성합니다. 이들은 이론 위주의 교육 대신 실무지식과 경험 전달을 위해 전문인력 초빙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안산캠퍼스 내에 입주해있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형 교과목을 개발하여 맞춤형 강좌와 다학제적 소양 강좌, 클러스터 산학협력형 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양대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과 달리 이공계 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까지 통합된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통하여 캠퍼스 내 인프라와 캠퍼스 인근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을 통한 기술상업화 성공사례도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중국 이공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칭화대학의 칭화 홀딩스(Tsinghua Holdings)와 칭화과학원(Tsinghua Science Park)이 그 사례입니다.⁶⁾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평생교육국(Di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 산하에는 2000년대 초 1,400여개의 학점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들 강좌는 원격 교육, 토요일 및 야간 강좌, 개별 학습지도과정, 교양 학사과정 등입니다.⁷⁾

VI

지금까지 대학발전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향후 더 광범위하고 깊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활용가능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5) 김정홍 외(2009), 대학 주도의 과학단지 운영사례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6) 정인혜(2008), 중국과 미국의 대학 기술지주회사 사례를 통해 본 기술상업화 성공요건. The Journal of Venture and Private Equity in Korea, March 2008. pp.1-20.

7) 김선호(2004). 미국 대학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과장급직무훈련 결과보고서.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제주도 사립대학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과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립대학 육성은 사립대학을 위한 것도 되지만 제주도의 발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제주도 사립대학 육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 사례들을 잘 참고하고 협력적 체제가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립대학 발전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7.18). 전문대학 육성방안.
- 교육부(2013.8).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시안)
- 교육부(2013.8).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 구자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호(2004). 미국 대학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과장급직무 훈련 결과보고서.
- 김정홍 외(2009). 대학 주도의 과학단지 운영사례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박재운 외(201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용 외(2006). 「광역 애틀랜타 경제권 상생발전 사례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정인혜(2008). 중국과 미국의 대학 기술지주회사 사례를 통해 본 기술상업화 성공요건. The Journal of Venture and Private Equity in Korea, March 2008. pp.1-20.
- 한국대학신문 기획기사. 2012. 7. 6. 대만과 일본의 전문대학.